Vol. 574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표 지

증발(蒸発) 영하 30도에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다!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 Nikon상
PHOTO : PARK INYEOP

통 권 **574호** 계간지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Contents

대사관 관련

03 신년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신년사

일한 관계

04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장양광 가톨릭대학교 교수 인터뷰
체험이 최고의 배움, 미완성을 즐기고 가능성을 찾아라!

일본 사정

09 일본의 계절을 걷다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의 거리를 걷다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14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온천, 나가노현의 미치노에키

19 트렌드 앤 트렌드
쌀가게의 변신, 아코메야 도쿄(AKOMEYA TOKYO)

일본 문화

22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일본의 새해 음식

24 영화 속 한 장면을 찾아서
용과 주근깨 공주의 풍경 속으로, 고치현

28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
일본의 주말을 책임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박물관

공보문화원 광장

33 2022 신년문화소개전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展, 봄 여름 가을 겨울 春夏秋冬

34 일본문화원 리포터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아사히야마 동물원

문화행사

36 제17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그랑프리
37 제10회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를 마치고
38 제9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서울대회를 마치고
39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40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44 공주는 Now-2

Instagram
@j.munwhawon
https://www.instagram.com/j.munwhawon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JapanEmbKoreaPICC

Facebook
@j.munwhawon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NaverBlog
https://blog.naver.com/bunkain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2월에 한국에 부임하여 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교활동과 일상생활, 일한 간의 왕래 등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일한 양국 간 현안으로 인해 일한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일본과 한국의 문화 · 경제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한 양국 최대의 문화 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은 재작년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교류 행사가 중지 또는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어떤 악천후에도 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일한 우호의 상징'이라는 '축제한마당'의 정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한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한경제인회의도 온 · 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일한,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양국의 미래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일한 양국 경제인 간의 굳건한 유대를 실감했습니다.

또 지난해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당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 지역의 부흥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하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투명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설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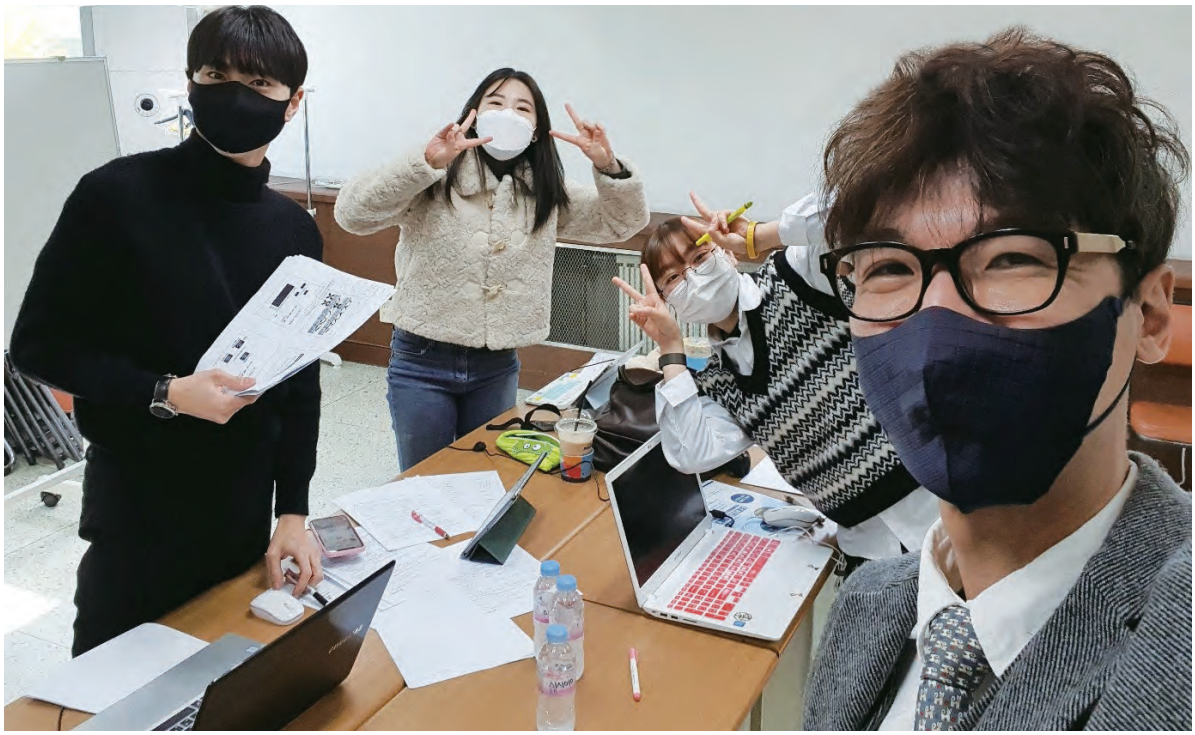
지난해 저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방역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한국의 지방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6월에 회의 참석차 방문한 제주에서는 현지의 경제 관계자들로부터 제주의 경제 사정과 일본과의 경제 · 문화 교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공주에서 무령왕릉과 국립공주박물관을, 12월에는 경상북도 포항의 구룡포와 포스코 제철소, 구미의 도레이와 AGC 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이러한 출장을 통해 일본과 한반도의 길고도 깊은 교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어 일한 양국의 인적 교류가 조기에 재개되고, 올해가 여러분께 풍부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체험이 최고의 배움
미완성을 즐기고 가능성을 찾아라!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서울대회가 11월 13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온라인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에는 전국대회가 유튜브로 진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 서울대표인 장양광(張良光)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교류와 대회를 마친 소감 등을 들어보았다.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집 근처 대학에서 디베이트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견학 간 것이 계기입니다. 원래 이벤트 등의 기획과 운영에 흥미가 있었고, 우리가 학생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매우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현장에서 학생들의 토론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대회를 뒷받침하는 운영위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심판의 진지한 눈빛에 감명을 받아, 꼭 저도 함께하고 싶어져 디베이트대회가 끝난 후,

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の運営に参加され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

偶然、家の近くの大学でディベート大会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見学しに行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元々、イベントなどの企画・運営に興味を持っており、自分たちで学生たちが活躍できる場を提供できるということに非常に強い関心を持ちました。実際に初めて学生たちのディベートを生で見たときに驚い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そしてディベート大会を支える運営委員の献身的な働き、審判の真剣な眼差しに感銘を受け、ぜひ自分も加わりたいと思い、ディベート大会終了後、運営

운영위원회에 직접 메일을 보내 참여 의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흥미로운 논제(테마)를 폭넓게 선정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데, 논제의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논제란, 논의할 가치가 있는 관심사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주어진 테마에 대해 각각의 시점에서 의견을 말하는 디스커션에 비해, 디베이트에서는 Yes나 No의 이항 대립이 일어날 만한 테마가 논제로 설정됩니다. 많은 경우, 경기 디베이트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은 단지 토론자의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실전, 회고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학력 향상이나 테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논제 선정에는 해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제가 소속된 논제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정책 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논제에는 사실 논제(예 : 야마타이국은 큐슈에 있었다)와 가치 논제(예 : 개보다 고양이가 더 좋은 반려동물이다), 그리고 정책 논제(예 : 일본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논제는 논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긍정과 부정에 치우침이 없는 것, 자료를 찾기 쉬운 것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委員会に直接メールを送り、参加したい旨を伝えました。

毎年、興味深い論題(テーマ)を幅広く選び、討論を行っていますが、論題の選定基準についてお聞かせください。

論題とは、議論する価値のあるイシューを、肯定と否定に分かれて議論できるように書き記した文です。与えられたテーマについてそれぞれの視点から意見を述べるディスカッションに対し、ディベートでは、YesかNoの二項対立が生じるようなテーマが論題として設定されます。多くの場合、競技ディベートとして行われていますが、その目的は、単に討論者の優劣や勝ち負けを争うのではなく、準備、本番、振り返りという一連の過程を通じて、語学力向上やテーマに対するより深い理解を得ることにあ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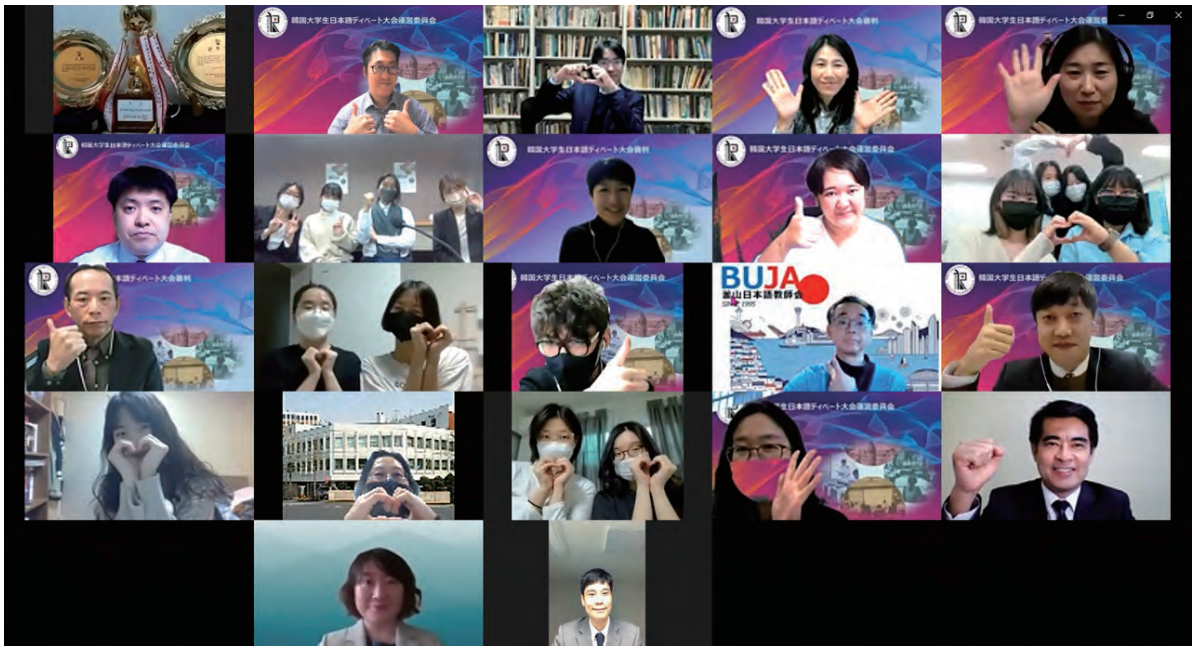
論題の選定には毎年多くの時間を費やしています。運営委員会とは別途、論題検討委員会というものがあり、私はそこにも所属しております。論題を選定する基準は、まず政策論題を扱うことです。論題は、事実論題(例:邪馬台国は九州にあった)や価値論題(例:犬より猫の方がよいペットだ)、そして政策論題(例:日本は死刑制度を廃止すべきだ)と3つに分けられます。政策論題は論点がはっきりしているため、取り組みやすい論題であると言えます。その他、肯定と否定に偏りがないこと、資料が探しやすいことといった基準があります。

張良光(チャン·ヤングァン)教授の記憶に残る討論者や内容があれば、紹介してください。

今大会優勝チームのメンバーの一人は、2019年大会に出場したものの、ソウル大会の予選で敗退したそうです。再出場を決心した翌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の影響で大会が中止になりました。それでも諦めずにディベートの勉強を続けた結果、今回、ソウル大会優勝、さらに全国杯優勝と、これまでの努力が実りました。諦めずに努力し続ければ報わ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くれました。

これまでディベート大会を準備する中で、苦労した点ややりがいを感じた時はいつでしょうか。

ディベート大会は、一年をかけて準備が進められます。年初



장양광 교수님의 기억에 남는 토론자나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번 대회 우승팀의 한 멤버는 2019년 대회에 출전했지만, 서울대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재출전을 결심한 다음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디베이트 공부를 계속한 결과, 이번에 서울대회 우승과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베이트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디베이트대회는 1년에 걸쳐 준비가 진행됩니다. 연초의 논제 검토를 시작으로 봄에는 디베이트 교류회, 여름에는 워크숍과 심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한국 대학생이 일본어로 디베이트를 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디베이트를 심사하는 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디베이트의 질을 낮추지 않고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디베이트를 배우고 일본어로 의 論題検討から始まり、春にはディベート交流会、夏にはワークショップとジャッジセミナーが行われます。韓国の大学生が日本語でディベートを行うのは非常に難易度が高く、ディベートをジャッジするにも知識が必要です。ディベートの質を下げずに、参加しやすい環境をつくるというのが非常に難しい点です。しかし、一生懸命ディベートを学び、日本語に翻訳し、日本語で討論している学生をみると、大きな可能性を感じます。大会に出場した学生から、ディベートを経験したことで物事を論理的に考え、緊張せずに答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面接を上手く終えて日本での就職が決まったという連絡を受け取ったことがあります。大会の運営だけでなく、学生の人生に関わることができ、非常に嬉しく思っ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

今大会を終えての感想をお聞かせ下さい。

昨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が拡大している状況を鑑み、初めて大会の中止を選択しました。今年は初のオンライン開催に踏み切ったため少し不安でしたが、オンライン開催のおかげでソウルと釜山で合同で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7月に行ったワークショップには28の大学から79名が参加

번역해서, 일본어로 토론하는 학생을 보고 있으면 큰 가능성을 느낍니다.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으로부터, 디베이트 경험이 사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은 채 대답할 수 있게 해주어, 면접을 잘 마치고 일본 취업이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대회 중지를 선택했습니다. 올해는 첫 온라인 개최라 조금 불안했지만, 온라인으로 개최한 덕분에 서울과 부산이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 열린 워크숍에는 28개 대학에서 79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심판도 온라인이라 한국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선생님께도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입론입니다. 온라인 개최라 인터넷 접속 상황이 나쁘거나 음성이 닿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처음으로 입론을 상대팀에게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입론 사전공유는 토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반박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첫 반박 전 질의응답의 재미도 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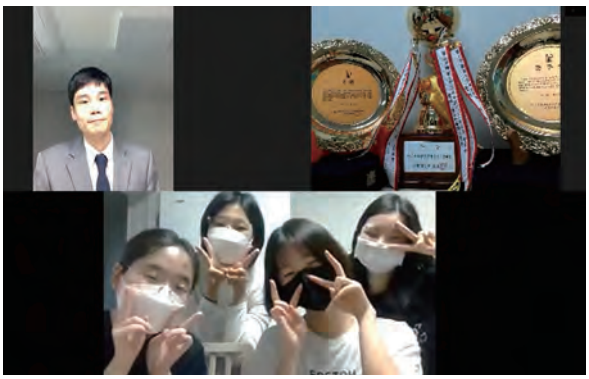
이번 대회의 심판위원장으로부터 "이번 디베이트대회에서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처럼 상대에게 경의를 보이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대를 물리치는 승부의 세계してくれました。また、審判もオンラインとすることで、韓国内にいる先生だけでなく、日本にいる先生にもお願い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今大会で大きく変わったのは立論です。オンライン開催ということでインターネットの接続状況が悪く、音声が届かない事態に備え、初めて立論を相手チームに事前に共有することにしました。この立論の事前共有は、ディベート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ました。第一反駁まである程度予想す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ため、深みのある議論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た、第一反駁前の質疑応答の面白さが増したのです。

今大会の審判委員長から、「今回のディベート大会では『～とおっしゃいましたが』といったように相手に敬意を示す表現が多くみられました。これはとても素晴らしいことです」とお褒めの言葉を頂戴しました。相手を打ち負かす勝負の世界であっても、相手に敬意を示す行為は美しいものです。日本語だけでなく、人としての成長も見せてくれる大会を開催できたこと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の開催は日韓の青少年交流にも大きく寄与していると思いますが、どのような点で寄与しているでしょうか。

我々運営委員会は、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を通じ、聴く、読む、話す、書くという日本語の4技能はもちろん、調査・発表といったアカデミック・スキルの向上を図ると同時に、「日本語ができる社会人リーダー」を育成するだけでなく、異なる文化・価値観を理解し交流する上で必要な思考力や豊か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を養う場を提供することも重視しています。


전국대회 우승(건국대학교)

전국대회 준우승(한국외국어대학교)

에서도,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개최는 한국과 일본 청소년 교류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운영위원회는 일본어 디베이트대회를 통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라는 일본어의 4개 기능은 물론이고, 조사와 발표라는 아카데믹 스킬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회인 리더'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력이나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논의하는 것은 서로 양보할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미완성임을 즐기세요. 가능성을 찾아주세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체험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여러분은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함께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같이 성장합시다.

전국대회 디베이터상(건국대학교)

ディベートは相手あってのものです。相手を理解し、敬意を示しつつ議論することは、互いに歩み寄る際に非常に大切な能力であると思います。

日韓交流に関心が高い青少年に伝えたい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ます。

未完成であることを楽しんでください。可能性を見つけてください。少しでも興味を感じることがあれば、一度体験してみてください。体験することが最高の学びです。みなさんは可能性の塊です。どこまでもその可能性は広がります。諦めなければ、それは失敗ではないのです。常に前向きに、楽しむ姿を見せ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仲間は増えていきます。人は死ぬまで成長できます。一緒に成長しましょう。

전국대회 3위(부산외국어대학교)

전국대회 3위(동의대학교)

도쿄 일루미네이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의 거리를 걷다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일본 주요 도시의 거리를 따뜻하고 화려하게 물들이는 일루미네이션 행사가 열린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와 도시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11월 중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루미네이션 행사는 보통 12월 25일이나 연말까지 진행되며 늦으면 1~2월까지 겨울 동안 볼 수 있는 곳도 많다. 일본의 겨울은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 5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길게 느껴지지만, 거리에 불을 밝힌 일루미네이션이 화사하고 따뜻한 겨울밤을 연출해준다.

도쿄 일루미네이션

도쿄(東京)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그에 걸맞게 다양하고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장소가 많다. 또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비교적 따뜻한 기온이라 거리에서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하기 좋다. 도쿄는 도쿄 중심인 23구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열리며 대부분이 관광 명소다. 처음 도쿄의 일루미네이션은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마다 경쟁하듯이 생겨났다.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전구나 네온관을 이용해서 조명한 장식이나 광고로 전광 장식 혹은 전식 광고라 한다. 전구나 네온관 등으로 직접 문자나 그림을 나타내는 직접식, 배경을 조명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문자나 그림을 부각하는 간접식, 또는 광고의 둘레에서 점멸하는 방식 등이 있다. 토킹 사인이나 실루엣 동화식의 시네 사인 등도 일루미네이션의 일종이다.

롯폰기 힐즈

도쿄 미드타운

시부야 고엔도리

오모테산도 거리

도쿄의 일루미네이션 명소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롯폰기(六本木)를 꼽을 수 있다. 롯폰기는 이곳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롯폰기 힐즈 모리타워(六本木ヒルズ森タワー, 2000년 완공)를 중심으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도쿄 타워와 함께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처음에는 롯폰기 힐즈 게야키자카(欅坂, 느티나무 언덕길)의 400m에 이르는 가로수에 70만 개의 LED 전구를 장식했으며, 이후 생긴 복합 오피스이자 쇼핑 시설인 도쿄 미드타운(東京ミッドタウン)의 산책길과 잔디밭에 불을 밝히고 이를 이용한 일루미네이션 쇼를 진행하며 롯폰기를 가장 화려한 겨울밤의 도시로 변신시켰다.

롯폰기와 인접한 시부야(渋谷), 오모테산도(表参道) 거리도 가로수를 일루미네이션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시부야는 2014년부터 시부야고엔도리(渋谷公園通り)에서 요요기(代々木)까지의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60만 개의 푸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롯폰기 힐즈 모리타워

오다이바

카렛타 시오도메

마루노우치

긴자 미쓰코시 백화점

른 빛이 도는 LED 전구로 장식하며, 몽환적인 분위기의 거리로 조성했다. 오모테산도는 진구바시 교차로에서 오모테산도 교차로까지 156그루의 나무와 화단에 90만 개의 샴페인 골드 빛의 LED를 설치하여 화려한 거리로 만들었으며, 중심에 있는 오모테산도 힐즈(表参道ヒルズ)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부야 남쪽으로 연결되는 에비스(恵比寿)도 도쿄 일루미네이션의 명소로 이곳의 정원인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는 'WINTER ILLUMINATION'이라는 이름으로 정원 중앙에 바카라의 대형 샹들리에를 두고, 그 주변에 수많은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하여 환상적인 연출을 이뤄낸다. 장소가 넓고 로맨틱한 분위기라 연인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데 일본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작품의 배경으로도 등장한다.

마루노우치 KITTE

이 밖에도 대형 백화점이 많이 모여있는 신주쿠(新宿), 일본 쇼핑의 일번지이자 가장 화려한 거리 긴자(銀座), 마루노우치(丸ノ内), 매립지를 관광지로 바꾸어 도쿄만의 야경과 레인보우브리지를 배경으로 멋진 일루미네이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오다이바(お台場), 미녀와 야수, 라푼젤, 알라딘 등 매년 디즈니의 다양한 작품과 콜라보하며 일루미네이션 쇼가 열리는 카렛타 시오도메(カレッタ汐留), 도쿄의 새로운 관광 명소인 스카이트리 주변은 도쿄의 일루미네이션 명소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도쿄는 대부분의 거리에 일루미네이션 명소가 있으며 새로운 상업시설은 대부분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달을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삿포로역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

스스키노

둘러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를 진행한 곳으로 1981년 삿포로(札幌)의 오도리 공원(大通り公園) 광장에서 약 1,000개의 전구를 사용해서 불을 밝힌 것이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さっぽろホワイトイルミネーション)'의 시작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이 추가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삿포로의 겨울 상징이 되었으며, 약 100만 개의 LED 전구를 사용해서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은 오도리 공원, 삿포로 TV 타워(さっぽろテレビ塔), 삿포로역(札幌駅), 스스키노(ススキノ),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北海道庁旧本庁舎)에서 이벤트가 열린다. 또 2002년부터는 삿포로가 독일 뮌헨의 자매도시가 되면서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의 메인이벤트 장소인 오도리 공원에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삿포로의 겨울, 홋카이도의 눈, 홋카이도의 자연,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테마로 구역을 나눠 오브제와 일루미네이션을 꾸민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일루미네이션 규모를 잠시 축소했다가 2월 삿포로 눈 축제(さっぽろ雪まつり)가 시작되면 다시 화려하게 불을 밝힌다.

후쿠오카 일루미네이션

후쿠오카(福岡)는 큐슈에서 가장 큰 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여성 인구 비율이 높아 쇼핑과 상업 시설이 많으며 겨울의 일루미네이션도 화려하다. 후쿠오카의 일루미네이션은 대부분 중심 도시인 하카타(博多)와 덴진(天神)에 모여있으며, 도보로도 하루면 둘러볼 수 있는 거리라 단시간에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즐기기 좋다.

후쿠오카 교통의 중심인 하카타에는 하카타역(博多駅)을 중심으로 히카리노마치 · 하카타(光の街•博多)라는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열린다. 비교적 이른 11월 초에 시작되며 JR 하카타역 광장에 대형 트리와 함께 80만 개의

히카리노마치 하카타

하카타역

하카타역 크리스마스 마켓

캐널시티 하카타

LED 전구가 불을 밝힌다. 매년 다른 테마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마켓도 함께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하카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후쿠오카의 관광명소인 캐널시티 하카타(キャナルシティ博多)가 있으며 이곳에서도 캐널 일루미네이션(キャナルイルミネーション)이라는 테마로 해마다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열고 있다. 캐널 일루미네이션은 운하를 테마로 건축물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중앙 홀의 분수에서는 분수 쇼와 함께 3D 일루미네이션 쇼도 진행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캐널시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후쿠오카 젊은이의 거리이자 대형 백화점이 많이 모인 덴진(天神)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도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열리며 중간마다 있는 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설치되어 쇼핑과 함께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할 수 있다.

덴진 솔라리아 백화점

덴진 중앙공원

나가노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온천
나가노현의 미치노에키

나가노현(長野県)은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3,000m급의 높은 산이 많아 일본의 지붕이라 불리며 일본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산악 지대다. 일본 알프스는 히다산맥(飛騨山脈), 기소산맥(木曽山脈), 아카이시산맥(赤石山脈)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데, 이 산맥 모두 나가노현을 지난다. 199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기도 한 나가노현은 스키와 스노보드 명소로 유명하며 올림픽을 위해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연결되어 교통도 편리하다. 나가노현의 자연은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 본래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며 마쓰모토성(松本城), 쓰마고주쿠(妻籠宿), 나라이주쿠(奈良井宿) 등 옛 모습을 간직한 소박한 온천 마을도 산촌 특유의 느긋한 분위기가 살아 있다.

미치노에키 우쓰쿠시가하라 ©道の駅美ヶ原高原

전망테라스 ©道の駅美ヶ原高原

우쓰쿠시가하라 고원 미술관 ©長野県

미치노에키 우쓰쿠시가하라

미치노에키 우쓰쿠시가하라 고원(道の駅美ヶ原高原)은 슈호오가토(主峰王ヶ頭, 2034m)를 중심으로 펼쳐진 해발 2,000m의 용암지대 고원에 있는 미치노에키로 후지산, 야쓰가타케(八ヶ岳), 일본 북 알프스(北アルプス) 등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미치노에키로 전망 테라스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의 깔끔한 식당도 갖추고 있다. 운이 좋으면 운해를 만날 수 있으며 인접해 있는 우쓰쿠시가하라 고원 미술관(美ヶ原高原美術館)에서는 약 4만 평의 옥외 전시장의 현대 조각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미치노에키 오아시스 오부세

미치노에키 오아시스 오부세(道の駅オアシスおぶせ)는 나가노현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일본 에도시대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絵)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작

호쿠사이칸

미치노에키 오아시스 오부세 ©道の駅オアシスおぶせ

밤나무 보도

구리오코와 ©道の駅オアシスおぶせ

미치노에키 오타리 ©道の駅小谷

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인 호쿠사이칸(北斎館)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 밤 나무가 많아 마을의 보도도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밤을 넣어 만든 구리오코와(栗おこわ) 밥도 유명하다. 미치노에키에서는 구리오코와를 직접 맛볼 수 있으며 도시락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또 나가노현의 절임 요리로 유명한 노자와나(野沢菜)와 함께 신슈 소바(信州そば)도 맛볼 수 있다.

미치노에키 오타리

미치노에키 오타리(道の駅小谷)는 나가노현에서 도야마현으로 넘어가는 히메가와(姫川) 강 인근의 미치노에키로 천연 온천인 미야마노유(深山の湯)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두 곳의 원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풍경을 감상하며 입욕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도 마련되어 있다. 또 이 지역 햅쌀인 고시히카리(コシヒカリ)로 지은 솥 밥 요리인 가마도메시(かまど飯)도 맛볼 수 있다. 나가노현의 다양

가마도메시 ©道の駅小谷

미야마노유 ©道の駅小谷

노자와 온천

미치노에키 노자와 온천 ©道の駅野沢温泉

한 특산품, 술 등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미치노에키 노자와 온천

미치노에키 노자와 온천(道の駅野沢温泉)은 온천과 스키장으로 유명한 노자와 온천 입구에 있는 미치노에키다. 노자와 온천은 8세기에 방랑하던 한 불교 승려가 발견한 온천으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바이애슬론 경기가 열린 곳이다. 마을에는 공중 온천 13곳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천과 함께 스키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미치노에키에는 노자와와 나가노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노의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미치노에키 카레 ©道の駅野沢温泉

노자와 온천 전망

미치노에키 비너스 라인 다테시나호 ©道の駅ビーナスライン蓼科湖

다테시나호 ©長野県

비너스 라인 ©Tomio344456

미치노에키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道の駅ビーナスライン蓼科湖

일본인이 사랑하는 작가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가 이 온천의 심볼을 디자인했으며 식당에서 이 디자인이 그려진 카레를 맛볼 수 있다.

미치노에키 비너스 라인 다테시나코

미치노에키 비너스 라인 다테시나호(道の駅ビーナスライン蓼科湖)는 나가노현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미치노에키로 2021년 7월 오픈했다. 비너스 라인은 나가노현 지노시 혼마치(長野県茅野市本町)에서 우에다시(上田市) 우쓰쿠시가하라까지 약 76km에 이르는 관광 도로이자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다. 평균 표고 1,400m이고 최고 지점인 우쓰쿠시가하라는 2,000m에 달하며 호수와 숲을 지나면서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미치노에키는 비너스 라인의 중간 지점인 다테시나호와 인접해 있으며 드라이브 중 잠시 들려 호수에 비친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미치노에키란?

道の駅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를 시작으로 1993년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품, 관광 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93곳이 등록되어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아코메야 도쿄

쌀가게의 변신
아코메야 도쿄 AKOMEYA TOKYO

아코메야

아코메야(AKOMEYA, あこめや)는 일본어로 쌀가게를 의미하는 고메야(米屋) 앞에 영어의 부정관사 A를 붙여 만든 단어로서 A는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쌀가게, 쌀가게가 아닌 곳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들어있다.

이름처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쌀과 쌀을 이용한 요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일본에 스타벅스와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쉐이크 쉑 버거를 들여오고 Afternoon Tea Tearoom 카페, 편집숍 La Kagu 등 세련되고 감각적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자비리그(サザビーリーグ)에서 개발한 브랜드다. 2013년 3월 도쿄 긴자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유명 백화점, 쇼핑몰에 상점이 있으며 쌀을 이용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경험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발달된 쌀 재배 기술로 생산량이 늘

아코메야 도쿄 라 카구(가구라자카)

쌀을 도정해주는 아코메야

다양한 포장의 쌀

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쌀이 남아돌고 농가와 쌀을 이용한 경제 활동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를 살리고 쌀을 이용한 경제 활동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던 사자비리그는 쌀 그대로의 소비보다는 고급화와 다양한 경험,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밥이 아닌 더욱 맛있는 쌀과 이에 어울리는 요리, 이를 만들기 위한 도구 등을 개발, 판매하며 또 하나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여 쌀을 밥상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꾸었다.

쌀은 보통 2~3kg에서 10~20kg까지 포대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코메야에서는 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나오는 쌀을 종류별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구매한 쌀은 현장에서 직접 현미부터 백미까지 다양하게 도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 지역별 햅쌀 출시일, 브랜

다양한 디자인 상품

쌀을 담는 도구와 도시락 포장기

그릇과 접시

계절 이벤트 상품

아코메야 쇼쿠도(식당)

코로나 대응 스크린 주문 방식

코로나 대응 스크린 주문 방식

식당의 양념(매장에서 판매)

드에 따라 다른 쌀의 맛과 비교하고 쌀의 식감, 쌀에 따라 불리는 시간과 요리에 따라 다른 밥 짓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추천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밥과 가장 어울리는 반찬, 이를 만들기 위한 양념, 재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쌀에 가장 어울리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아코메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소개했던 쌀, 밥, 반찬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 서적과 요리, 식문화 관련 서적, 다양한 조리기구, 주방용품, 아이디어 상품을 함께 진열하고 있으며 하나의 멋진 밥상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주먹밥 만들기, 전통 도자기 밥그릇 전시 등 쌀과 관련된 이벤트와 계절에 따라 다른 상품 구성, 선물 세트 등 즐길 거리도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곳에 들리기만 하면 쌀과 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방이라도 멋진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한다. 또 고객이 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도를 높이고 요리 실력이 늘어나면서 지인에게 아코메야를 추천하거나 재방문하게 만든다.

아코메야 쇼쿠도
AKOMEYA食堂

일본의 아코메야 지점 중에서도 도쿄의 도큐프라자 시부야(東急プラザ渋谷), 가구라자카(神楽坂) 지점에서는 아코메야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료와 도구를 이용한 한 끼 밥상을 맛볼 수 있다. 엄선된 소재와 제철 식품으로 만들어낸 아코메야 쇼쿠도의 깔끔한 요리는 식사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아코메야의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도전하게 한다.

아코메야 쇼쿠도의 한끼

일본의 새해 음식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새해 음식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아시아권 가운데 음력설을 쇠는 풍습이 사라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일 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인데, 이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니(雑煮)'입니다. 조니는 떡을 넣은 국으로, 국을 만드는 다시의 재료와 간 맞추는 방식, 안에 넣는 건더기 등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먼 옛날, 지난해 수확한 쌀로 만든 떡과 농작물을 신에게 바치고 새로운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신에게 바치고 남은 음식을 끓여서 먹던 것이 조니의 기원입니다.

이번에는 나카무라 아카데미(中村アカデミー)의 본교인 일본 나카무라 조리제과전문학교(中村調理製菓専門学校)가 위치한 후쿠오카현(福岡県)의 '하카타 조니(博多雑煮)'를 소개합니다. 하카타란 후쿠오카의 중심부로서 하카타 조니의 국물은 구운 날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후 소금, 간장, 청주로 간을 맞춥니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둥근 떡, 소금을 뿌린 방어, 뿌리채소, 가쓰오나라는 채소 잎이 사용됩니다. 구운 날치 육수(아고다시)는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치(御節)'입니다. 오세치란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식자재를 다양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찬합에 가득 담은 음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만들었지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시판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일본의 백화점에서는 오세치 예약 판매로 붐비는데, 이번 호에서는 오세치 가운데,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소개합니다.

'쿠리킨톤(栗きんとん)'은 치자를 넣어 선명한 노란색으로 물들인 고구마 페이스트에 설탕을 넣어 반죽하고 밤 조림을 섞어줍니다. 고구마와 밤의 황금색은 '금(gold)'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홍백 나마스(紅白ナマス)'는 무와 당근 초절임으로 일본의 축하 파티에서는 이 색상이 기본이며, 빨강과 흰색은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방어는 성장하면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출세어'라고 불리며, 좋은 운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새우는 가열하면 허리가 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수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치는 이렇게 길한 재료로 찬합을 가득 채웁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 동안 먹는 음식이라 보존이 잘 되는 초절임, 단맛이 강한 것, 맛이 진한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싱겁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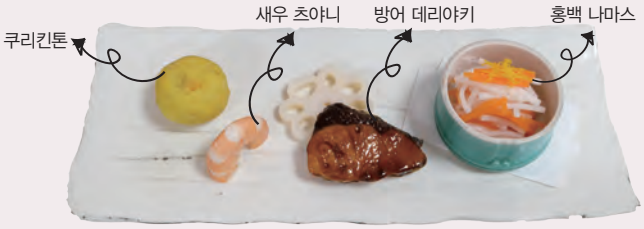
이 요리는 한국의 일본 요리점이나 일본을 여행할 때 좀처럼 접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집필 시마무라 코타(島村公大)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하카타 조니(2인분)

재료 방어 80g(덩어리 상태에 소금을 뿌려 2~3일간 재워 둔 것) | 닭다리살 30g | 당근(1.5㎝두께) 2장 | 토란 2개
무(1.5㎝두께) 1~2장 | 건 표고버섯 2장(전날 물에 불려둔 것) | 가츠오나(시금치로 변경가능) 40g | 유자 껍질 소량
조미료 아고다시(날치 육수) 800cc(※말린 날치로 우린 다시) | 청주 30cc | 고이쿠치 간장 30cc | 소금 소량
조리법
① 미리 소금을 뿌려둔 방어를 사각형으로 썰어, 끓는 물에 데친다.
② 닭 다리 살은 한입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데친다.
③ 당근과 무는 매화 모양 틀로 찍어 끓는 물에 익힌다.
④ 토란은 껍질을 벗겨 쌀뜨물에 익힌다. 부드러워지면 흐르는 물에 식힌다.
⑤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차가운 물에 식힌다. 모양을 맞춰 자른다
⑥ 아고다시, 청주, ①의 방어, 건 표고버섯을 넣고 가볍게 끓인다.
⑦ 불순물을 제거하고, 약불로 10~15분간 방어 안의 소금을 우려낸다.
⑧ 방어 안의 소금이 우러나면, ②, ③, ④를 넣고 고이쿠치 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⑨ 다른 냄비에 끓는 물을 준비해 떡을 데친다.
⑩ 재료를 그릇에 담고, 국물을 붓는다. 모양낸 유자 껍질을 올린다.

오세치 요리(2인분)



【쿠리킨톤】

재료 고구마 100g | 밤 조림 3개 | 치자 소량
조미료 설탕 15g | 미림 10cc
조리법
①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근다.
② 냄비에 적당량(분량 외)의 물을 넣고 치자와 ①을 넣어 가열한다.
③ 고구마가 부드러워지면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④ 고구마를 볼에 넣고 으깬다.
⑤ ④와 설탕, 미림을 냄비에 넣고 가열하며 치댄다.
⑥ 식으면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밤 조림을 넣는다.
⑦ 면 보자기 등을 사용해 둥글게 모양을 낸다.

【새우 츠야니】

재료 새우 2마리
조미료 다시 100cc | 고이쿠치 간장 10cc | 미림 10cc
조리법
① 다시와 조미료를 냄비에 넣고 가볍게 끓인다.
② 끓으면 새우를 넣는다.
③ 새우가 익으면 냄비째 얼음물에 밭쳐 식힌다.
④ 껍질을 벗기고, 양 끝을 잘라 모양을 맞춘다.

【방어 데리야키】

재료 방어 40g 2토막 | 밀가루, 식용유 소량 | 연근 아마즈 절임 2장
조미료 고이쿠치 간장 10cc | 청주 10cc | 미림 10cc | 설탕 3g
조리법
① 방어에 밀가루를 묻힌다.
②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①의 양면을 굽는다.
③ 모든 조미료를 볼에 넣고 섞는다.
④ ②의 기름을 제거하고, 온도를 낮춰 ③을 넣는다.
⑤ 방어에 조미료를 끼얹어가며 졸인다. 적당히 졸아들면 완성.

【홍백 나마스】

재료 무 60g | 당근 20g | 유자껍질 소량
조미료 다시 100cc | 식초 35cc | 설탕 15g
조리법
① 무, 당근은 채 썬다.
② 각각 소금물에 담가 부드럽게 한다.
③ 다시, 조미료를 냄비에 넣고 가열한다. 설탕이 녹으면 식힌다.
④ 물로 ②의 소금기를 제거한다. 수분기를 제거하고 ③에 절인다.
⑤ 그릇에 담고 채 썬 유자 껍질을 곁들인다.

아소오 침하교(浅尾沈下橋) ©kvca

용과 주근깨 공주의 풍경속으로 고치현

고치현(高知県)은 일본 시코쿠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태평양 해안에 자리 잡고 있어 온난한 기후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다. 고치의 중심인 고치시에는 고치성(高知城)과 같은 유서 깊은 시내 풍경과 오래된 사케 양조장, 주변의 전통시장 등이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고치현 서남부의 무로토(室戸) 지역의 독특하고 투박한 해안 지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남쪽의 해안은 파도가 좋아 일본 열도 전역에서 서퍼가 모이고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만토가와(四万十川)는 강기슭에서 휴가를 즐기러

하카와 공원(波川公園) ©kvca

니시노타니 제2버스정거장(西の谷第二バス停) ©kvca

노우즈 초등학교(能津小学校) ©kvca

JR 이노역(伊野駅) ©kvca

오는 캠핑족과 하이킹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아웃도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애니메이션 '용과 주근깨 공주(竜とそばかすの姫, 2021)'의 배경지인 이곳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풍경을 찾아보았다.

용과 주근깨 공주에서는 강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현실의 강으로 묘사된 곳이 고치현의 니요도가와(仁淀川)다. 에히매현(愛媛県)과 고치현을 흐르는 총 124km의 큰 강으로 수질이 좋으며 맑고 투명하기로 유명하다. 작품에서는 아소오 침하교(浅尾沈下橋)와 마을, 니요도블루(仁淀ブルー)라 불릴 정도로 맑고 투명한 야스이 계곡(安居渓谷), 강 하류의 관광명소 하카와 공원(波川公園) 등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니요도가와 이외에도 강 주변에 있는 노우즈 초등학교(能津小学校), 니시노타니 제2버스정거장(西の谷第二バス停), JR 이노역(伊野駅) 등이 등장하며, 영화 속 애니메이션과 똑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조금 놀라게 된다. 강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강 하류의 항구인 우사어항(宇佐漁港)도 마찬가지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곳의 강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다른 한 곳은 고치현의 중심인 고치시에 있다. 주인공이 통학하며 작품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강이 고치시내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가가미가와(鏡川)다. 가가미가와가 흐르는 고치 시내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JR 고치역(高知駅)과 애니메이션 속 열차가 다니는 JR 아사쿠라역(朝倉駅), 작품 속에 작품을 찾을 수 있는 현립역

우사어항(宇佐漁港) ©kvca

JR 고치역(高知駅) ©663highland

JR 아사쿠라역(朝倉駅) ©kvca

사민속자료관(県立歴史民俗資料館), 번화가로 등장하는 오비야마치 상점가(帯屋町商店街)가 있어,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처럼 열차를 타고 거리를 걷는 기분에 빠져든다. 니요도가와와 고치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작품 속의 멋진 풍경으로 등장하는 이리노 해안(入野海岸) 역시 작품을 떠올리며 찾으면 좋다.

용과 주근깨 공주

용과 주근깨 공주(竜とそばかすの姫, 2021)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호소다 마모루(細田守)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 소도시의 평범한 소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스타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메타버스는 가상, 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말로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경제,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품의 배경이 된다. 제74회 칸영화제 프리미어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57

오비야마치 상점가(帯屋町商店街) ©高知県

이리도 해안(入野海岸) ©kvca

가가미가와(鏡川) ©kvca

일 만에 누적 관객 423만 명, 흥행 수익 58.7억 엔을 돌파하며 올해의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인 사토 다케루(佐藤健), 나리타 료(成田凌), 소메타니 쇼타(染谷将太) 등이 출연했으며, 주인공인 스즈 역할로는 인디 뮤지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나카무라 가호(中村佳穂)가 주제가와 사운드 트랙 작곡에도 참여했다. 작품은 현실과 메타버스 두 세계로 나뉘며 현실 세계는 일본 시코쿠의 고치현을 모델로 했다. 작품에서 강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고치현에는 투명한 빛깔로 유명한 니요도가와, 고치 시내를 흐르는 가가미가와가 있어 작품의 배경으로 선정되었다. 메타버스인 가상세계는 평면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속의 현실과 차이를 두기 위해 3D와 CG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술로 표현되었다.

호소다 마모루 ©Dick Thomas Johnson

호소다 마모루
細田守, 1967~

시간을 달리는 소녀(時をかける少女, 2006), 썸머 워즈(サマーウォーズ, 2009), 늑대아이(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2012), 괴물의 아이(バケモノの子, 2015), 미래의 미라이(未来のミライ, 2018), 용과 주근깨 공주(竜とそばかすの姫, 2021) 등 3년 주기로 새 작품을 발표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도야마현(富山県) 출신으로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金沢美術工芸大学)을 졸업하고, 지브리 스튜디오 채용 시험에서 떨어진 후 도에이 애니메이션(東映アニメーション)에 들어가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디지몬(デジモン), 게게게노 키타로(ゲゲゲの鬼太郎), 원피스 극장판 등 도에이의 작품을 연출하다, 2005년 퇴사 이후 프리로 활동하며 연출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흥행을 거두고 연달아 발표한 '썸머 워즈'도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스튜디오 치즈(スタジオ地図)를 설립하고, '늑대아이'를 시작으로 '용과 주근깨 공주'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늑대 아이' 세 작품으로 30개가 넘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을 일본과 해외에서 수상했으며 최신작인 '용과 주근깨 공주'는 칸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사자에상 가족

일본의 주말을 책임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박물관

일본은 매주 주말이 되면 신나는 주제가와 함께 오랫동안 동시간에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토요일 오후에는 TV 아사히 계열의 방송 채널에서 도라에몽(ドラえもん), 일요일 오후에는 후지 TV 계열의 방송 채널에서 치비마루코짱(ちびまる子ちゃん)과 마루코짱이 끝나는 동시에, 같은 채널에서 사자에상(サザエさん)이 이어진다. 모두 20년 이상 방송된 애니메이션으로 사자에상의 경우 1969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동시간대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어 일본인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방송된 만큼 팬층도 두껍고 에피소드와 관련된 자료가 많아 각각 갤러리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 IP(지식재산)로서의 가치도 높다.

가와사키시 후지코 F. 후지오 뮤지엄

가와사키시 후지코 F. 후지오 뮤지엄(川崎市 藤子・F・不二雄ミュージアム)은 만화가 후지코 F. 후지오(藤子・F・不二雄)의 작품 원화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주로 도라에몽(ドラえもん)을 테마로 꾸며져 있다. 도라에몽은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하나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기가 높다. 1969년 잡지 연재를 시작으로 197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니혼 TV 관련 채널에서 최초로 방영되었으며, 이후 방송사를 TV 아사히로 옮겨 1979년 4월 2일부터 2005년 3월 18일까지 방영되었고, 다시 2005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다.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온 로봇으로 초등학생인 노비타(のび太)와 함께 다양한 모험을 벌인다.

후지코 F. 후지오 뮤지엄

아이들이 즐길 콘텐츠가 많다

후지코 F. 후지오 시어터

옥상정원

도라에몽 극장판 캐릭터

너구리 같은 외형이지만 사실은 고양이로 귀가 없이 머리가 둥근 것은 쥐가 귀를 뜯어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양이면서도 쥐를 무서워한다.

후지코 F. 후지오 뮤지엄은 도라에몽은 물론 후지코 F. 후지오가 생전에 만든 캐릭터와 만화 속에 등장하는 도구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전시관에는 후지코 F. 후지오의 만화 일부가 전시되어 있으며 3층 옥상에는 작은 정원과 함께 다양한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든 다양한 상품과 생전에 연재한 단행본 만화책도 구매할 수 있다. 뮤지엄 카페도 있으며 이곳에서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좋아하는

도라에몽의 어디에든 문

도라에몽의 암기빵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객 수를 하루 2,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정보 확인은 필수다.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도라야키

치비마루코짱 랜드

치비마루코짱 랜드(ちびまる子ちゃんランド)는 원작자인 사쿠라 모모코(さくらももこ)의 출신지인 시즈오카현 시미즈구(静岡県清水区)에 있는 일본 유일의 치비마루코짱 상설 뮤지엄이다. 한국에서는 '마루코는 아홉 살'이라는 제목으로 투니버스에서 방송되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애니메이션이다. 후지 TV에서 1990년 1월 7일부터 1992년 9월 27일까지 1기가 방송되었고, 1995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는 작품으로 초기에는 4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본 역대 최고 애니메이션 시청률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작가인 사쿠라 모모코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을 투영하여 만든 캐릭터 마루코짱이 가족, 친구와 함께 펼치는 일상생활을 그린 코미디 만화다. 197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마루코는 배경지인 시즈오카현을 상징하는 주요 심볼 마스코트로 사랑받고 있다.

치비마루코짱 랜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을 묘사한 세트로 잘 꾸며져 있으며, 주인공이 되어 놀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또 원작자인 사쿠라 모모코의 작품을 모아둔 사쿠라 모모코 기념관,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

치비마루코짱 랜드

치비마루코짱과 친구들

마루코짱과 기념사진

마루코짱의 학교

어지러진 마루코짱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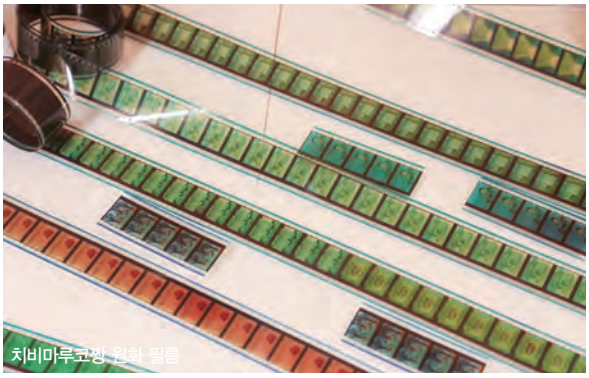
사쿠라 모모코의 일러스트와 손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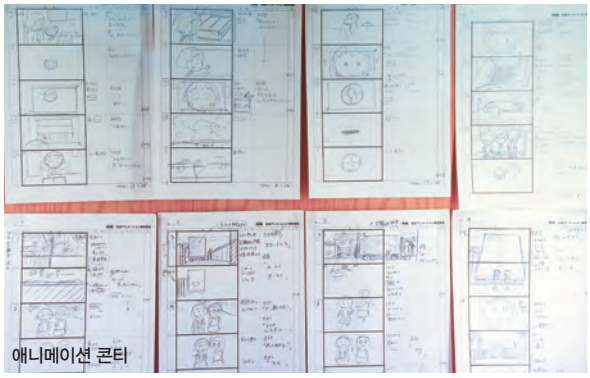
는 치비마루코짱 시어터 룸, 치비마루코짱과 사쿠라 모모코의 원화 등 오리지널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 숍도 마련되어 있다.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

하세가와 마치코(長谷川町子, 1920~1992)는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사자에상(サザエさん)을 탄생시킨 만화가로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長谷川町子美術館)은 그녀가 언니와 함께 모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개인 미술관이다. 사자에상은 1969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후지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일본의 장수 애니메이션으로 평균 시청률이 20%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자에라는 평범한 주부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트 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이 사자에(소라), 와카메(미역) 등 전부 해산물 이름인 것이 특징이다.

관내에는 미술품 외에도 만화의 원화나 피규어, 사자에상


치비마루코짱 원화 필름


애니메이션 콘티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

사쿠라신마치 거리의 사자에상

사자에상 일러스트

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점에서는 미술관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도쿄의 사쿠라신마치(桜新町)역에서 미술관으로 향하는 거리에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 곳곳에서 사자에상의 귀여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 만화 속 세상을 거니는 것처럼 재미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사자에상 관련 전시가 아닌 그녀의 언니가 수집한 소장 작품전이 열리므로 반드시 전시 내용을 확인해보자.

미술관이 있는 도쿄 사쿠라신마치 마을

상점의 사자에상

공원에도 사자에상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展

봄 여름 가을 겨울 春夏秋冬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명소 에도 100경(名所江戸百景)' 중
가메이도 우메야시키

春 스이도바시와 스루가다이

夏 다카나 우시마치

秋 마마의 단풍 데코나신사의 쓰기하시

冬 후카가와스자키십만평

매화와 벚꽃, 불꽃놀이와 반딧불, 청명한 밤하늘의 달, 눈 덮인 소나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계절을 즐겨왔던 일본의 감수성은 문학과 미술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하이쿠(俳句)에서는 계절의 풍광과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고(季語)'라 불리는 사계와 관련된 시어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서민이 즐겨 찾던 최첨단 미디어이자 그림이던 우키요에(浮世絵)에서 계절적 소재는 특히 풍경 판화에서 두드러졌다.

아름다운 여성이나 가부키 배우 등의 인물 표현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우키요에는 19세기에 접어들며 일본 곳곳의 절경과 친근한 풍속을 결합하여 묘사하는 이른바 '메이쇼에(名所絵)'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도 풍경 판화의 두 거장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와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는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호쿠사이는 '후가쿠 36경(富嶽三十六景)'에서 후지산의 다양한 표정과 주변 경관을 기발하고 파격적인 구도로 포착했고, 전국의 유명한 폭포와 다리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 '전국폭포순례(諸国滝巡り)','치에의 바다(千絵の海)' 연작을 제작했다.

히로시게는 에도(도쿄)의 명소를 참신한 구도로 소개한 '명소 에도 100경(名所江戸百景)'과 도카이도(도쿄와 교토를 잇는 간선 도로)의 풍취를 서정성 넘치게 다룬 '도카이도 53역참(東海道53次)'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호쿠사이와 히로시게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려한 풍광 속에 드러난 춘하추동의 느낌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다.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이 만발한 산과 강 그리고 사시사철과 관련된 축제와 풍속을 만끽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2022년 1월 10일(월)~22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02-765-3011(ex 120, 123)
http://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무료관람(자유관람, 입장시 방문자 리스트 작성, 다른 이용자와의 거리 확보) 상세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아사히야마 동물원

김주원 일본문화원 리포터(7기)

곧 출발합니다. 모여주세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이른 아침, 삿포로역 버스터미널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설렘과 기대로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하얀 입김이 나올 만큼 추운 날이었지만 한겨울의 동물원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선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삿포로역을 출발한 버스는 새하얀 눈길을 달려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주차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 쌓인 휴게소에서, 조금씩 거세지는 함박눈만큼 동물원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두 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아사히야마 동물원(旭山動物園), 새하얗게 물든 동물원은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순수해지는 듯했다.

처음 이곳을 찾기 전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뒤뚱뒤뚱 눈밭을 걷는 펭귄을 볼 수 있는 '펭귄 산책'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날 펭귄 산책은 볼 수 없었다. 다시 동물원을 찾아오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산책하는 펭귄은 보지 못했지만 흰 눈 속에 파묻혀 옅은 미소를 짓고 있던 흰 부엉이, 너무 귀여운 걸음으로 쉴 새 없이 나무를 오르내리던 레서 판다, 상상과는 다르게 너무 깜찍했던 표범 새끼 두 마리, 나를 반겨주듯이 가까이에 와서 인사하던 원숭이, 흰 눈 속에 날카로운 눈빛을 내뿜던 여우, 루돌프를 실물로 본 것만 같았던 순록, 물 속을 유유히 헤엄치던 거대한 북극곰까지. 날씨 좋은 봄에만

가는 줄 알았던 동물원이었는데,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왜 겨울의 동물원이 아름다운지 알게 해준 근사한 곳이었다.

기적의 동물원, 펭귄을 날게 하자

기적의 동물원으로도 유명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旭川市)의 '아사히야마 동물원'. 1967년 개장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1990년대 중반 인근 도시에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지만, 사육 반장을 거쳐 원장에 취임한 고스게 마사오(小菅正夫) 원장과 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한 사육사의 노력 덕분에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철창에 갇힌 무기력하고 일률적인 움직임의 동물이 아닌, 본능 그대로 자유롭게 뛰어놀며 생기 있는 모습의 동물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로 동물과 사람의 거리를 좁혀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습성에 맞춰서 공간을 디자인하며 사육사가 직접 담당 동물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제작, 동물과 같이 놀면서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만드는 등 '행동 전시'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전시 형태의 동물원을 만들었다.

특히 사육사만 볼 수 있었던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듯 헤엄치는 펭귄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중에 투명한 아크릴 터널을 제작하고 물을 채워 펭귄을 자유롭게 헤엄치게 한 펭귄관은 큰 인기를 끌었다. 마치 푸른 하늘을 펭귄이 나는 듯한 이 아름다운 모습은 2009년 쓰가와 마사히코(津川雅彦) 감독의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펭귄을 날게 하라'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동물원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랜 시간 동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육사와 이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추운 겨울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한 장소가 되었다. 흰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동물을 만나러 홋카이도로 다시 떠나고 싶다.

제17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그랑프리

12월 11일, 제17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일본문화원 YouTube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브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국의 사회나 문화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국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다지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그랑프리를 받은 후지모토 미호 씨의 수상작을 소개한다. 대회 영상은 일본문화원 YouTube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결혼 13년차!
고맙다고 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 vs 고맙다고 듣고 싶은 일본인 와이프

후지모토 미호(藤本美穂)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후지모토 미호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13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희는 각자 국제결혼을 하게 될 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일본에서 자란 저는 일본인과, 한국에서 자란 남편은 한국인과 결혼할 거라 막연히 생각했었죠. 대학교에서 만난 저희는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12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남편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맙다고 잘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과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일본인 와이프인 저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머 미호 씨, 남편이 감사할 줄도 몰라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어머님 생신은 음력이라 깜빡했습니다. 축하를 못한 남편 대신, 바로 꽃집에 연락해 꽃을 주문하고 전달했는데 그다음 날 출근한 남편으로부터 '어머니가 꽃 잘 받으셨대,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 수고했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의 고맙다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셨나요? 어머니가 꽃 잘 받으셨대 라는 꽃을 잘 받았다는 표현도 어머니가 고맙대 라는 뜻이 되고, 마지막에 수고했어라는 표현도 고맙다는 뜻이 됩니다.

한국어에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마워요. 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 돌려 말하는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대신 '잘 받았어요' '잘 쓸게요'. 누가 밥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대신 '잘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후 만나게 되면 다시 한 번 '그때는 감사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를 인사하듯이 연발합니다. 감사합니다의 표현 하나도 이렇게 다른 한국과 일본인데…저는 남편이 고마워할 줄 모르나 봐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야'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 당연히 생각과 습관이 다를 텐데…저는 남편의 성향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얼굴은 비슷하게 보여도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이고 나는 그런 한국인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의 습관과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잊고 살지 말자, 나는 일본인이고 당신은 한국인이야.'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난 사람이 살아온 시대, 시대가 만든 문화, 문화를 통해 생긴 습관을 잘 공부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사람들 역시 같은 이해를 저에게 해준다면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는 고맙다는 말은 신경 써서 하는 한국인 남편과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 일본인 와이프인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YouTube

제10회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를 마치고

2021년 11월6일(토), Youtube Live와 Zoom을 통해 제10회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가 개최되었다. 본선에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세종, 전북, 전남 등 전국에서 진행된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27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꿈, 사회문제, 문화사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일본어로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노부오카 마리(信岡麻理) 일본어교육어드바이저는 "여러분의 스피치는 마음 속으로 울리는 힘이 있었으며, 다양한 관심사에 놀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전달되었다"고 심사 강평을 남겼다. 참가자 및 시청자는 "코로나19 속에도 대회가 열려서 일본어 학습의욕이 높아졌다", "다양한 주제의 스피치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일본어도 들을 수 있었다" 등 코멘트를 남겼다. 제10회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는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YouTube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私たちはなぜJPOPの魅力から抜け出せないのか。

김다연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대상 수상자)

みなさんは、「歌ってみた」をご存知ですか。「歌ってみた」は自分の歌声を録音または撮影し、SNSやインターネット上に配信することをいいます。この「歌ってみた」を中心に活躍するアマチュア歌手のことを「歌い手」と呼んでいます。実は私もユーチューブでJ-POPの曲を配信しています。そしてまだ翻訳ができていない曲を自分で翻訳して共有をしたこともあります。 世界にはジャズ、クラシック、ロック、K-POP、EDMなど様々なジャンルがあり、どんなジャンルの音楽を聴くかによって、人の価値観や性格が把握できるほど私たち人生の中で深く係わっています。 毎日J-POPを歌ったり、聴いたりしてJ-POPから抜け出せない私は今日J-POPの魅力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J-POPの特徴、その一つ目はジャンルの多様性です。

日本の音楽はニューエイジ、J-Rock、アニメーション音楽、エレクトロニカ、渋谷系などジャンルの多様性と膨大な市場の大きさによって、色んなジャンルの音楽が発展し、他のアジア諸国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ました。バラードやアイドル曲が他のジャンルよりもはるかに圧倒する韓国とは違って日本の音楽市場の消費者は、一部のジャンルに極めて偏っておらず、ほとんどのジャンルに需要があります。日本のオリコンチャートでは1位から10位まで全て違うジャンルの歌で構成されていて、新しいジャンルを開発するのにかなり良い条件を持っていて個性的なアーティストたちの曲が多いです。

二番目の特徴はJ-POPだけの叙情的な歌詞です。

J-POPは愛という同じ主題で歌詞を書いても歌詞の表現力や比喩的な部分で圧倒的に評価されてあります。ほとんどの日本の音楽は歌詞一つ一つに繊細で深い意味を含んで叙情的に解き明かしますが、これによりまるで詩のような歌詞で余韻を残す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私もこのような繊細で心に響く歌詞一つ一つが大きな共感と慰みになってJ-POPをもっと好きにな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思います。

最後の特徴は歌が持つ本質の切実さです。

恋人との別れと愛をテーマにした歌詞の歌がほとんどのK-POPとは違ってJ-POPは歌が含んでいる意味や歌詞が愛以外にも人生、家族、友情など曲を作った人が自分の人生を盛り込んで価値観を表現することで自分だけの色んな意味とテーマを持っています。J-POPはそのジャンルと歌が持つ意味の多様性が多いだけに伝えようとする意味をとても重要視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J-POPは愛と別れだけで塗られている最近の歌の間で自分だけの心と意味を込めた曲を作り出すということが私は本当にかっこいいと感じて感動しました。

私は悲しいときや苦しいときにいつもJ-POPを聴いてきました。特に私は米津玄師さんの曲をよく聴いたんですが、Viviやアイネクライネみたいに彼だけの独特な世界観と差別化された歌詞の表現で辛い時に歌詞が内包している数多くの意味と新しい意味を探しながらたくさんの慰め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だからこそ私にはJ-POPがもっと切なく感じられて特に惹か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音楽好き」というのは世界各国どこにでもいて、その人たちのもとにうまく届けばJ-POPがちゃんと伝わ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海外向けにこういう曲を作ろう」との考えは、かえってその意識が障壁となって失敗するかもしれません。私たちがどんな音楽を探してどんな歌を聴いても感動という感情が感じられる音楽こそ真の音楽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皆さんもどうか、心に響く個性があふれるJ-POPの世界に一歩近づくきっかけになったら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9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서울대회를 마치고

11월 13일(토), 제9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서울대회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올해는 줌(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승전은 유튜브(YouTube)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 대회는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이 한국과 일본 공통의 사회 문제를 고도의 일본어를 구사해서 토론해 가면서 한국 대학생의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으로 진행된 행사다.

이번 대회의 논제는 '한국은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韓国はペットの売買を禁止すべきである。是か非か)'로 10개 대학에서 36명의 학생이 입론과 반론 및 교차 질의 등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우승은 건국대학교, 준우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차지했다. 이 두 대학은 11월 27일(토)에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건국대학교(서울대회 및 전국대회 우승팀)

참가 동기

대표 김서현(일어교육 3) 2019년에 참가했을 때는 전국대회조차 진출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고자 다짐했고 2021년에 재도전했습니다.

김민주, 박제희(일어교육 3), **이하은**(일어교육 2)) 과거 참가했던 다른 학우를 보며 참가를 희망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일본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승 소감

8월부터 주 2회 회의와 다양한 시사문제로 모의 디베이트를 하거나 기타 훈련을 거치면서 가끔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 1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다양한 반박과 질의를 구상하는 사이에 논리적 사고와 말하기 방법, 그리고 일본어 실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준 팀원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대회를 개최해 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시상 내역

단체상	학교명	지도교수	대표	선수
우승	건국대학교	나가시마 노리코 (長島倫子)	김서현(일어교육3)	김민주, 박제희(일어교육3)
				이하은(일어교육2)
준우승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명재 (文明載)	최진욱(일본언어문화2)	박서령(융합일본지역4)
				김은석(일본언어문화2)
				조은서(융합일본지역2)
3위	숙명여자대학교	요네자와 시오리 (米澤史織)	문혜원(숙명여대 일본2)	조예진(숙명여대 일본2)
	동덕여자대학교			나영주(동덕여대 일본어3)
3위	경기대학교	구라이시 미토 (倉石美都)	주원(일어일문4)	강호인,김예나,최이지(일어일문4)
				허인범(일어일문3)
개인상	**학교명**	**지도교수**		**선수**
신인상	백석대학교	김현정(金賢廷)		황태윤(일본어1)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한국의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티브로 창작한 '2021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일본어 학습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어를 접하고 있는 학습자는 물론, 많은 학생 등이 응모한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와 일본어 교육 전문가, 폰트 제작 관계자 등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수상 작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중등부 수상자

대상 아름다운 백합 / 김서현 / ゆり

우수상 까마귀 / 김채은 / カラス

우수상 화재 / 장지호 / かじ

장려상 레몬 / 성채민 / レモン

장려상 음료 / 한서연 / のみもの

장려상 응 / 조성현 / うん

고등부 수상자

대상 입술 / 곽미래 / くちびる

우수상 자신 / 박예은 / じぶん

우수상 하트를 안은 곰인형 / 박서현 / ぬいぐるみ

장려상 금붕어 / 강나경 / きんぎょ

장려상 기타 / 한승우 / ギター

장려상 연필 / 정소정 / えんぴつ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한일포토콘테스트 시상식 YouTube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 · 인적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8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추억을 잇다, 마음을 전하다'라는 콘셉트로 상대국의 매력을 담은 사진은 물론, 상대국에 소개하고 싶은 자국의 매력을 담은 사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약 1,000명이 4,0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공동 주최 및 후원 단체 · 기업 · 기관의 심사 결과, 수상 작품으로 선정된 총 23 작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나가사키현상 나가사키, 그 아름다운 저녁 KIM SANGHAK

오키나와현상 여름날의 슈리성 AHN JOOYOUNG

산인상 석양이 비치는 신지호 KIM SEULGI

돗토리현상 사구를 처음보고 하이텐션 YUN SIG

에히메현상 만추가경 CHO JUNHYOUNG

시즈오카현상 만선의 꿈 LIM KYUDONG

미야기올레상 일본에서 만난 '간세'는 더 반갑다 WOO JANGHO

아오모리현상 평화로운 고(古)성에 내린 순백의 겨울 NOH SUNGKYUNG

아키타현상 아키타의 첫 눈 EUM JEONGOH

Canon상 가을아침 HWANG SUNYOUNG

EPSON상 염원의 불빛 PARK HOYEOL

ANA상 물의 흐름 KWON SEUNGHEE

INTERPARK상 남원의 밤 PARK JIHUN

Inpainter Global상 항구 JANG SEUNGHO

JAL상 봄날의 란덴, 그리고 소녀 KIM CHUNGOO

Nikon상 증발 PARK INYEOP

CLAIR상 묘도의 아침 KIM HYUNSUK

VECTORCOM賞 시치고산 IRIE YURI

특별상 2020 Tokyo Olympics KEN

특별상 교토의 아침상 KIM JAEWOOK

주한일본대사관 HP https://www.kr.emb-japan.go.jp
한일포토콘테스트 https://kjphotocon.org/

특별상 크리스마스이브의 노을 RYU YEONA

주한일본대사관상 전통을 굽어보다 KIM JINMYUNG

주한일본대사관상 일몰을 머금고 달리는 기차 CHO KYUNGHOON

■ Episode 65 - 공주(公州)는 NOW-2 ■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学)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십두지두 조충우돌 유학 여행기

2017년 10월,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단체가 추진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으로 양국에 흩어져 있던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가 총 111건 333점!!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충남이 유일하다.
그리하여 공주에서는 지금

"조선통신사 공주에 납시었네"

그런데 조선통신사 행렬이 공주를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공주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인물이 세분이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조선통신사와 관련 있는 공주의 인물들

죽당 신유
(1610~1665)
제5차 조선통신사
(1643, 인조 21년)
직책:종사관
'해사록'

죽리 김이교
(1764~1832)
제12차 조선통신사
(1811, 순조 11년)
직책:정사
'신미통신일록'

퇴석 김인겸
(1707~1772)
제11차 조선통신사
(1763, 영조 39년)
직책:서기
'일동장유가'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였던 신미통신사, 정사 김이교가 대마도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신미통신일록' (충남 유형문화재 제222호)은 현재 충남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동안 공주에서는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양국 학자의 학회는 물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서기 김인겸이 일본에서의 기행을 한글 가사로 정리한 '일동장유가'

일본 시즈오카 세이켄지(清見寺)에는 김인겸을 비롯한 조선통신사의 필적이 남아있어요. 마치 오래전 그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요~

조선통신사충청남도연구회 회원과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에 승선할 기회가 생겼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는 목포 앞바다를 일 주.

조선통신사충청남도연구회는 향후 충청남도 전역으로 조선통신사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공주(公州)는 NOW 자문:공주대학교 윤용혁 명예교수님.

maidoookini@naver.com